

## 선사시대

### 1. 고대사회(古代社會)의 성립

선사시대先史時代는 아직 문자가 발명되지 않아 역사기록이 없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인류가 남긴 유적과 유물을 토대로 당시의 생활과 문화를 연구하는 인류·고고학考古學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 복원 해석된다. 광복 이후 고고학 방법에 의한 발굴 연구가 1960년대에 이루어지고, 영광지역에서는 1973년에 백수일대의 고인돌이 처음으로 발굴 소개되었다. 이후 고인돌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이후 각 시기에 걸친 집자리와 무덤, 유적들로 확대되어 이제 영광지역의 선사문화를 일정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어 선사시대가 포함된 영광의 온전한 역사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 ◇ 군동유적

원시사회原始社會는 어느 특정한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종족의 보편적인 단계에 해당한다. 영광에서도 인류 최초의 문화인 구석기시대에 속하는 원당·마전·군동 유적을 비롯하여 현재 12개소가 조사 보고되어 이 지역에서 중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구석기인들이 살았음이 확인되었다. 이들이 살았던 시기는 대체로 4만 5천~1만 5천년 전으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집자리가 생활근거지 주변인 강가에 분포되어 있으며, 뿔석기(打製石器)를 사용하고 채집경제를 영위하면서 가족 단위의 무리사회(群社會)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영산·낙월면의 섬지역에서 패총貝塚 3개소가 발굴되어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물론 영광에서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매우 빈약하지만 앞으로의 발굴조사에 따라서는 내륙의 해안가에서도 발견될 가능성이 많아 주목된다. 이들 신석기들은 간석기(磨製石器)와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하고, 농경 정착의 움집(竪穴住居) 생활을 계기로 혈연관계가 보다 확산된 씨족氏族 단위의 부족사회部族社會로 발전하게 된다.



◇ 영광 원당 구석기유적 발굴현장

영광의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143개소로서 가장 많이 발굴 조사되었다. 고인돌은 134개 지역에 712기로서 주로 받침돌 4개가 고인 기반석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읍면 곳곳에서 발굴될 정도로 청동기 문화가 영광 전역全域에 확산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인돌은 백수·홍농읍과 대마면, 불감면, 묘량면, 군서면, 군남면 일대에 밀집 분포되어 있으며, 마전·군동 유적에서는 금강이나 영산강유역과 동일한 문화권의 주거지가 발굴조사 되었다. 이들 영광의 청동기인들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원전 10~5세기에 살았으며, 청동검과 민무늬토기를 사용하였다. 이 시기에는 비약적인 농업생산력의 발전으로 계층·계급 분화가 진전되고, 최초의 정치사회인 군장국가가 출현하게 되었다. 바로 고인들의 주인공은 그 축조 운반이나 군집 현상으로 보아 권력의 소유자였음을 알게 한다.



◇ 배수읍 지산리지석묘

이러한 과정을 거쳐 B.C. 4세기 무렵 후기 청동기문화 위에 철기문화鐵器文化가 보편화되면서 종래의 군장국가는 연맹왕국 단계로 발전하여 고대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 2. 구석기 시대 유적과 생활

영광지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구석기시대 유적은 총 12개소인데, 이 중 대마면 원흥리 원당·마전·군동유적이 발굴조사 되었다. 이는 영산강과 서해안지역의 저평한 구릉지대에서 최근 많은 구석기시대 유적이 확인된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구석기시대의 특징 유물인 뿔석기는 지표상에서 발견되기는 쉽지 않다. 지층이 삭도되거나 자연 유실되었을 때 발견된 경우가 많고, 원래는 지표면 하에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깊게는 수m 아래에서 발견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영광 지역에 많은 구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마전유적의 뿔석기는 갱신세 토양 중 2개의 지층에서 발견되었다.



◇ 마전 구석기시대 유적지



◇ 원당 구석기시대 유적지



◇ 군동 구석기시대 유적지



◇ 마전 출토 타제석 찍재 외(구석기)

윗 문화층의 석기는 주로 석영맥암 자갈로 만들어졌으며, 층위로 볼 때 후기구석기시대에 해당된다. 아래 문화층의 석기는 매우 적으나 층위 상중기구석기시대로 추정되어 중요하다. 원당과 군동 유적의 구석기는 주로 석영맥암으로 제작된 것들로써, 석기 제작 방법을 알려주는 몸돌과 격지, 망치돌이 있으며, 사냥돌과 톱니날, 굽개, 훔날 등이 있다. 문화층이 상부와 하부 토양층 사이 존재하며, 석기의 제작기법으로 직접떼기가 쓰였고, 석기 갖추새로 보아 중기구석기시대로 생각된다. 마전·군동·원당유적에서 확인된 구석기유적은, 영광지역의 구석기인들이 중기구석기시대부터 후기구석기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살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된다.

영광지역의 구석기인들이 살았던 시기는 전남지방에서 측정된 절대연대로 보아 대략 4만 5천 년 전부터 1만 5천 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광의 구석기인들은 유적들이 발견된 지형으로 보아 나지막한 구릉상에 생활의터전을 잡고 살았다. 그들의 생활 모습은 다른 지역에서 밝혀진 것들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자연환경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굴에서 생활하거나 인위적으로 집을 짓고 생활했다. 집자리는 대부분 생활근거지 주변인 강가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유적의 문화층이 강가 퇴적층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집자리의 구조는 대개 바닥이 타원형이나 장방형으로 파여 있고 원뿔 모양의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3. 신석기 시대 유적과 생활

전남지방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 유적은 주로 해안의 도서지방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으나 최근 내륙 지역에서도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되고 있어 주목된다.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된 광주 노대동유적은 구덩이(수혈)와 적석유구에서 신석기시대 후기 말에서 말기초의 토기들이 출토되었다. 서해안변의 함평 당하산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의 화덕자리, 석기제작소, 부석유구, 원형유구 등 토기와 석기 등의 유물도 출토되었다.



영광의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3개소인데, 유물산포지 1곳과 조개무지 2곳이다. 영산면 오동리 연화유적, 낙월면 상낙월리 조개무지, 낙월면 송이도 조개무지가 있다. 조사된 유적들 중에는 빗살무늬토기가 확인되고 있어 그동안 공백기로 남아있었던 이 시기문화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오동리 연화유적은 마을의 동쪽 산의 능선부에 위치한다. 유물은 신석기시대 빗살무늬 계통의 점열문, 사선문이 수습되었다. 상낙월리 조개무지유적은 낙월도 선착장 뒤의 작은 구릉으로부터 연결되는 패각층의 흔적이 해안선을 따라 동쪽으로 이어져 있었으나, 경작으로 인하여 파괴되었다. 조개무지의 규모는 길이 50×10m이다. 패각층의 두께는 1.5m 정도이고, 빗살무늬토기편 2점이 확인되었다. 송이리 조개무지유적은 송이리대촌마을에서 북쪽 해안도로를 따라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의 곡간 대지상에서 패각층이 확인되었는데, 빗살무늬토기 구연부(입술부분), 동체부(몸통부분), 저부(바닥부분)편 등 8점이 수습되었다.

영광에서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주로 도서지역에서 발견되지만 내륙의 해안변에서도 발견될 소지가 많다. 신석기시대 대표적인 유물인 빗살무늬토기는 서해안지역을 따라 나타나는 조개더미유적들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한 조사를 한다면 더 많은 유적이 발견될 것이고, 내륙의 저평한 구릉지역에서도 집자리와 같은 유적이 발견될 것이다. 현재 발견된 조개무지유적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영광지역의 신석기시대 문화를 밝힐 필요가 있다.

신석기인들은 대부분 식량자원이 풍부한 해안가 언덕, 큰 강가의 대지, 인근 도서해안지역에 자리 잡고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석기시대 집은 구석기시대에 이용했던 동굴이나 바위그늘이 계속 이용되고 있으나 새로이 땅을 파서 만든 움집(竈穴住居)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움집은 대부분 물가의 가까운 낮은 산의 경사면에 지름4~6m 크기의 구덩이를 파고 50cm 정도의 깊이로 파내어 바닥을 만든 후 중앙에는 화덕을 마련하고 기둥을 세워 지붕을 덮은 형태로 원뿔모양이나 네모뿔모양으로 복원된다. 화덕은 둥글거나 네모꼴로 만들었으며 간단한 음식이나 실내보온, 조명을 위해 이용하였다. 바닥은 맨바닥이나 진흙을 깔아 다졌으며 그 위에 마른 풀이나 짐승 가죽을 깔고 생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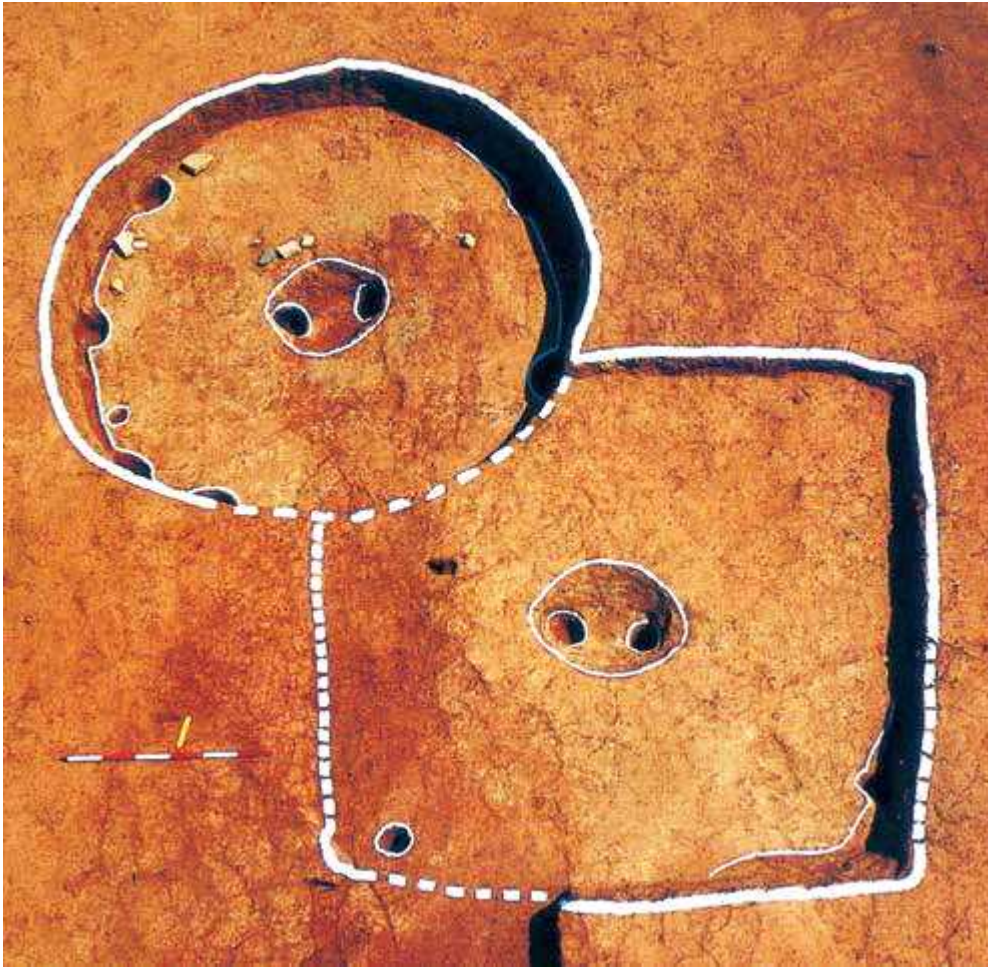
#### 4. 청동기 시대 유적과 생활

청동기시대의 주거양상은 주로 구릉과 충적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취락을 형성하였으며 정착생활을 하였다. 청동기시대의 주된 생업은 농경이었으며 어로와 동물사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농경과 관련된 밭과 논이 발견되어 오늘날의 농경이 청동기시대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동기시대에 와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무덤들이 집단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무덤 조성과 함께 검(간돌검, 비파파형동검)과 축(간살축과 청동축), 단지형토기(붉은간토기, 가지문토기) 등이 부장되어 당시의 신분적 차이가 있음을 증명해 준다. 이 시기의 무덤으로는 대표적인 고인돌을 비롯하여 돌널무덤(석관묘), 움무덤(토광묘), 독무덤(옹관묘) 등이 있다. 고인돌은 땅 속이나 땅 위에 돌로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한 덮개돌을 올려놓은 형식의 무덤이다. 그 수는 약 4만 여기로 세계적인 밀집분포지가 우리나라임이 밝혀졌고, 화순, 고창, 강화지역의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제977호)로 등록되어 세계 거석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약 2만 여기 이상이 분포된 전남지방이 중심지역이다.

청동기시대의 사회는 국가 형성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혈연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사회에서 점차 지배층이 등장하는 계급계층사회로 변화되어 가면서 역사상의 마한 소국들이 각 지역에서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영광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집자리와 고인돌을 들 수 있다.



◇ 마전 청동기 집자리

집자리가 확인된 곳은 영광 마전유적과 군동유적이다. 영광에서 발굴된 집자리는 금강이나 영산강유역에서 나타나는 청동기시대 집자리의 형태나 출토 유물 측면에서 보면 같은 문화권이라 할 수 있다. 영광 마전유적은 마전마을 낮은 구릉으로 청동기시대 집자리 10기가 조사되었는데, 모두 송국리형 집자리 형태를 띤다. 출토유물은 민무늬토기편, 붉은간토기편(紅陶), 간돌화살촉, 돌끌, 숫돌 등이다. 군동유적은 구릉의 능선을 따라 12기가 조사되었는데, 평면 형태는 방형이나 원형으로 중앙에 타원형의 작업구덩이를 갖춘 송국리형 집자리이다. 출토유물은 돌끌, 돌도끼, 민무늬토기편 등이다.

마전유적의 집자리들은 화강암 석비레층을 파고 지어져 벽과 바닥이 잘 남아 있다.

그 평면모습은 원형과 방형 두 가지이며, 모두 바닥 가운데 타원형의 구덩이와 그 안쪽 양 끝에 기둥구멍이 만들어져 있다. 이를 소위 ‘송국리형’ 집자리라고 일컫는다. 이를 통해 청동기시대의 마을이 어떤 지세를 선호하였으며, 또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집자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소형 유구는 가운데 송국리형 집자리처럼 타원형의 작업공과 그 양 끝에 기둥구멍이 만들어져 있어 주목된다.

마전유적의 집자리에서 발굴된 유물은 수량이 매우 적은 편이지만 청동기시대 중기 단계의 특징을 보이는 유물이다. 즉 대접형과 심발형의 민무늬토기와 붉은간토기(적색마연토기), 그리고 갈돌, 돌화살촉, 돌끌, 대패날, 숫돌, 썰개, 망치돌과 천하석제 등근 구슬 등이다. 특히 석기는 화살촉 2점, 돌끌 2점, 대패날 2점, 숫돌 2점, 달된 연장, 깨진 연장 마름질 석재와 석재 부스러기, 숫돌 조각, 작은 자갈 돌 등으로, 영광에서 조사된 집자리 중 발굴된 석기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영광에서 발견된 집자리의 연대는 일반적으로 기원전 6-4세기로 편년되고 있지만 이 곳 집자리와 소형유구에서 출토된 숯으로 측정한 방사성탄소연대는 보정연대가 기원전 10~8세기로 나타나 기존의 편년보다 약 4-2세기나 더 빠르다. 최근 조사된 같은 유형의 집자리들의 방사성탄소연대는 기원전 10세기에서 5세기에 집중되고 있어 영광지역의 청동기시대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동기시대 무덤유적으로는 고인돌, 돌널무덤石棺墓, 움무덤土壙積石墓·土壙木槨墓, 독널무덤 등이 있으나 영광지역에서는 2007년까지 고인돌 5개소만 발굴조사 되었다. 영광지방에 분포된 고인돌은 114개 군집지역에 512기이나 유실된 고인돌을 포함하면 원래 134곳에 663기가 분포되어 있었다. 이 고인돌들은 평지나 구릉, 산기슭에 대개 10기 미만이 군집해 있었고, 대마면처럼 40여기가 대군집을 이루고 있는 곳도 있다.

각 지역별로 훼손 정도의 차이가 많으며, 원래는 백수읍, 대마면, 흥농읍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백수와 흥농 지역은 바다에 인접되어 있고 만灣이 형성된 곳으로, 바다를 통한 대외 교류가 가능한 곳이었다. 대마는 내륙으로 들어와 있지만 노령산맥과 인접한 곳으로, 고인돌 덮개돌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마와 인접한 전북 대산면 상금리 일대는 수백기의 고인돌이 밀집된 곳으로, 청동기시대에 중심거점지역 중 하나다. 그와 같은 중심지역은 백수일대에도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복룡지석묘군 1호지석묘 하부구조



◇ 영촌지석묘 하부구조 노출



◇ 수왕5호 지석묘 1차 개석



◇ 수왕5호 지석묘 2차 개석



영광군 고인돌의 특징은 탁자식고인돌과 기둥모양의 고임돌柱形支石을 한 기반식 고인돌을 들 수 있다.

탁자식 고인돌은 모두 5기인데, 군남면 설매리 동고, 불갑 쌍운리 회복, 백수 죽산리 명산, 묘량 삼학리 왕촌, 묘량 삼호리 석전 등이다. 이 탁자식 고인돌은 덮개돌 밑에 판돌板石로 된 길이 150cm 내외의 무덤방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는 전북 고창에서 영산강유역에서 발견한 탁자식과 대동소이하하여, 고인돌사회의 한 문화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영광에서 발견된 기반식 고인돌은 괴석塊石형 덮개돌 밑에 자연석으로 고인 것과 사각형으로 다듬은 장주석을 세워 고인 것이 있다. 앞의 고인돌은 받침돌이 4~6개이나 기본은 4개이다. 이 형식은 백수 길용리 용암·천마리 금자동, 흥농 단덕리 마래·가곡리 가학·진덕리 서당, 군남 반안리 대안·동월리 매화·남창리 석암·용암리 조양·대덕리 흥곡, 불갑 가오리 고인돌이 대표적이다.



◇ 군남면 설매리 동고지석묘

특히 흥농 마래 말바우 고인돌은 4개 받침돌이 고이고 있는데, 덮개돌 밑의 중앙에 73×25cm 크기의 소형 돌널무덤방이 있다. 주형지석을 한 기반식고인돌은 높이 60cm 이상 들려져 있는 형태로 인접된 고창, 함평, 무안지역에서도 보이지만 영광지역에 가장 밀집된 양상이다. 이 고인돌은 무덤방이 발견된 경우가 희박하지만 외형상으로 뚜렷한 점에서 타 고인돌과는 비교될만하다.

이런 형태의 고인돌은 입체적인 덮개돌을 하고, 높이 60~80cm 내외로 받침돌에 의해 지상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외관상 매우 돋보인 고인돌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거대한 덮개돌 밑에 받침돌이 고인 전형적인 기반식 고인돌의 존재도 이 지역 고인돌의 한 특징이다.

영광에서 발굴된 묘량 영양리 영촌 고인돌의 하부구조下部構造는 3기이고, 1기는 이동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토유물은 간돌검 1점, 간돌화살촉편 1점, 돌로 만든 그물추 1점, 석채편과 후대의 태항아리 등이 있다. 영촌 고인돌은 영촌마을 앞의 저수지 맞은편에 있는 영성정씨 정근의 제단 앞부분에 이전·복원되어 있다.

묘량 영양리 수왕 고인돌은 깬돌로 만든 무덤방 2기, 돌널무덤방 6기 등 총 8기로 이들 중 2기는 소형돌널이다. 5호 고인돌은 뚜껑돌蓋石을 3중으로 덮은 특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출토유물은 붉은 간토기편과 돌화살촉편 뿐으로 매우 빈약하다. 수왕고인돌은 소형돌널인 4호와 3중 뚜껑돌인 5호를 국립광주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옮겨 전시중이다.

묘량 삼호리 석전 고인돌은 덮개돌의 크기가 길이 380cm, 너비 320cm, 두께 120cm이다. 받침돌은 추정높이가 60~80cm인 규모의 4매를 이용하여 조성하였는데, 주형과 자연석을 각각 2매씩 이용하였다. 무덤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판돌형 석재 여러매를 수평을 맞추어 정연하게 깔았으며 그 사이에는 깬 돌을 깔았다.

불갑 금계리 전촌 고인돌은 덮개돌 규모가 길이 260cm, 너비 160cm, 두께 90cm이며 무게는 약 9.8톤이다. 하부구조는 유실된 것으로 보이며, 출토유물은 없다. 불갑 금계리 유봉 고인돌은 3기인데(전

촌마을 입구에서 불갑저수지 송상공사로 인하여 유봉마을앞으로 옮김, 2004), 무덤방은 모든 고인돌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받침돌은 1호 고인돌의 경우, 조성했다. 그리고 1호 고인돌의 경우 평면 타원형으로 묘역을 조성하고 높이 60~70cm인 주형으로 4매를 돌렸다. 규모는 450cm×280cm이며 출토유물은 수습되지 않았다. 법성 대덕리 복룡 고인돌군은 총 8기를 조사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1·2호 고인돌에서는 각각 4매의 고인돌이 확인되었으며, 돌덧널과 같은 매장시설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은 수습되지 않았다.



◇ 불갑금계리 전촌 고인돌1



◇ 불갑금계리 전촌 고인돌2

이외에 군서 송학리 고인돌에서는 2기의 고인돌 주변에 돌널무덤 7기가 배치되어 있어, 고인돌과 함께 돌널무덤도 많이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로 본 영광의 고인돌은 받침돌 4개가 고인 기반식 고인돌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무덤방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장유물도 빈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